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3>
(修習止觀坐禪法要)

제9장 치병(治病) ⑦

사대와 마음의 근원에는 본래 병이 없어

有師言 但用止觀檢析身中 四大病不可得 心中病不可得 衆病自差 如是等種種說 用觀治病 應用不同 善得其意 皆能治病 當知止觀二法 若人善得其意 則無病不治也 但今時人根機淺鈍 作此觀想多不成就 世不流傳 又不得於此更學氣術休糧 恐生異見 金石草木之藥 與病相應 亦可服餌

우리의 사대 색신은 지수화풍 외부 사대를 빌려서 이루어져 있다. 만일 외부 사대가 없다면 내적인 우리 몸의 사대도 결코 없다. 지금 내적인 사대에서 병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자기의 색신을 점검하여 미세하게 추구해 그 병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만 한다.

가령 내 몸의 지대에 병이 있으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외부 산하대지에도 역시 병이 있어야만 하며, 화대에 병이 있으면 목전의 등불과 땔감에서 일어나는 불 등에도 병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산하 대지와 등불 등에는 병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지대와 화대 등에도 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와 같이 미세하게 관찰한다면 지수화풍 사대에는 병의 모습이 본래 없고 외부 사대에 병이 없다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대를 주재하는 내 마음속에서 병의 모습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 보았으나 그 실체 역시 끝내 얻지 못하였다.

내 마음을 추구해보아도 그 실체를 얻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병의 실체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옛날 남악 혜사대사는 산중 암혈에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다가 종기와 중풍이 생겨 사지가 무거워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 후 대사는 마음의 근원을 곧바로 관찰하여 병은 업을 따라서 일어나고, 업은 미혹을 따라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미혹을 끝까지 추구해보았으나 실체를 얻지 못하였다. 다시 자신의 사대병환의 근원을 추구해보았으나 여기에서도 역시 실체를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병이 찾아왔다 해도 마음의 실체가 없는데 누구를 핍박하겠으며 뉘라서 그 병을 받아들이겠는가.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병은 스스로 낫게 된다.

앞에서 큰스님들이 관 수행으로 병을 치료하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 말하였다. 비록 큰스님들의 말씀이 동일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체득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수행에서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는 의미를 체득했으면 언어의 집착을 잊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지와 관이라는 두 종류의 수행법문은 다스리지 못할 병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 요즘은 시대가 말법에 해당하여 중생의 근기가 천박하고 둔하여 가이 엷는 죄업을 종횡으로 짓고 있다. 이 모두는 미혹으로부터 찾아온 것이다. 이 상태에서 거친 마음, 급한 기운으로 지관수행을 한다면 성취되지 않는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육기(六氣)와 십이식(十二息)을 상상으로 관찰하면서 수행을 한사람들은 많았지만 잘못된 수행 때문에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세간에서는 이 수행법이 지금까지 유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들이 위태로운 몸에 약간이나마 그 수행법을 빌려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몸은 편안해지고 도 역시 간직된다. 만일 이 수행법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자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라면 그것은 허깨비 마군의 짓이므로 급히 버려야만 한다.

이는 대체로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견이 순수하고 올바른 데에 있으므로 털끝만큼의 삿된 생각도 내 마음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대에 병환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관을 수행하여 치료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행 도력이 아직 박약하다면 금석과 약초로 조제한 세간의 약으로 치료해도 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병과 약이 서로 맞는다면 약을 복용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若是鬼病 當用彊心加呪以助治之 若是業報病 要須修福懺悔 患則消滅 此二種治病之法 若行人善得一意 卽可自行兼他 況復具足通達 若都不知 則病生無治 非唯廢修正法 亦恐性命有虞 豈可自行教人 是故欲修止觀之者 必須善解內心治病方法 其法非一 得意在人 豈可傳於文耳

앞에서 사대와 오장에서 일어난 병은 지관수행과 금석이나 약초로 조제한 약으로 치료하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강론하였다.

병은 업에서 일어나고, 업은 미혹에서 일어나
지관 두 법은 의미만 체득해도 많은 병 치유

그러나 가령 귀신병이라면 견고한 마음으로 용맹정진하고 여기에다 주력의 힘을 더해야 한다. 주력이란 신묘장구대다라니 능엄주 왕생주와 삼십육수주(三十六獸呪) 등으로 보조해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 귀신병이 아니고 전생의 업 때문에 일어난 과보의 병이라면 반드시 부처님 앞에서 광대하게 공양을 해야만 하는데, 공양물이란 향과 꽃과 영락 등을 말한다. 혹은 선지식에게 의복과 음식과 침상과 의약 등 네 가지 일로서 공양을 해도 된다.

이와 같이 밖으로는 복덕을 닦고 내적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참회한다면 전생의 업보로 일어난 병이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

앞서 나왔던 신묘장구대다라니나 왕생주 등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가령 시간 따라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귀신의 장난이라면 반드시 삼십육수주를 외워야만 한다. 그 주문을 말해본다면 '波提陀 毗耶多 那摩那 吉利波 阿違婆 推摩陀 難陀羅 憂陁摩 吉利摩 毗利吉 遮陀摩'이다

이 두 종류의 병 치료법가운데서 수행인이 그 가운데 하나의 의미만 잘 체득하고 여법하게 치료한다면 자신의 수행에 만족할 뿐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는데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두 종류의 병 치료법 가운데 하나만 알아도 이와 같이 훌륭한데 두 가지 방법을 완전하게 통달한다면 자리이타의 공덕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러나 두 종류의 병 치료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병이 일어날 때 손을 써 볼 수가 없어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럴 경우 정법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마저 끊어질 염려가 있다.

우리의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가 화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부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대만 조화가 되지 않아도 병이 일어나는데, 사대 전체가 조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명이 보존 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자신이 수행하면서 다시 다른 사람까지 교화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지관을 수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내적인 마음으로 병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나 번다하므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를 체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에 있는데 이를 어떻게 문자로서 전수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문자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데 비해 그 진정한 의미를 체득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실천수행론(實踐修行論)

팔정도(八正道)

팔정도(八正道)는 팔성도(八聖道)라고도 합니다. 사제법문에서 고집이제(苦集二諦)를 소멸시키려면 반드시 도제(道諦), 즉 정도(正道)를 닦아야만 열반멸제(涅槃滅諦)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팔정도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견(正見)

무명으로 인해 세계와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허다하게 사견(邪見)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뇌가 생산되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올바른 견해가 요구됩니다. 여기에서 정견은 사제의 이치를 명백하게 관찰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지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견해가 있어야만 도덕적인 수행을 올바르게 하여 끝내는 열반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2) 정사유(正思惟)

사제의 이치를 올바르게 관찰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지녔다면 여기에서 다시 치밀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사유하여 진실한 지혜가 더욱 증가하게 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탐욕스러운 생각, 성내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은 가지지 않고 온화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3) 정어(正語)

정사유를 통한 정확한 사상을 지녔다면 반드시 실제적인 실천에 부합해야만 공리공론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사상을 가장 먼저 현실로 표현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어는 허망하지 않은 말, 비방하지 않는 말, 꾸미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속담에 '병은 입을 따라 들어오듯 재앙도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는데, 말을 삼가야만 원한을 부르지 않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4) 정업(正業)

'업'은 모든 행위를 지적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어가 정사유의 초보적인 실천이라면 올바른 행위는 그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정업은 생명을 손상하지 않는 것까지 포괄하는데, 일체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행동을 조심하는 것인데, 악업을 짓지 않아야만 괴로움의 과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5) 정명(正命)

'명'은 생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물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의롭지 않은 물건은 취하지 않아야만 하며, 사치스러운 생활도 추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두고 '정명', 즉 올바른 생활태도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내몸내가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 자신 건강관리 / 따주기 사회봉사 /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이름 모를 병,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과 인간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번에 아는 남 · 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5.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 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9. 2. 21(토) 오전 9시부터 ~ 2. 22(일) 오후 1시까지
(2월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요망)
(2)수강료 : 34만원 (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 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참나를 찾는 수행도량 금강선원

금강선원에서는 혜거 큰 스님과 함께하는 "제28기 선하불교대학"과 "제14기 기초참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선하불교대학은 불교교리, 의전, 기도법 등을 공부하여 자신을 향상시키는 불교입문과정입니다
– 개강일시 : 2009.3.2(월) 10:30~14:00
– 수강기간 : 14주 (매주 월요일)
– 회 비 : 6만원 (교재비 별도)

기초참선과정은 참선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참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과정입니다
– 개강일시 : 2009.3.2(월) 15:00~17:00
– 수강기간 : 14주 (매주 월요일)
– 회 비 : 20만원

金剛禪院
서울시 강남구 개포 3동 186-3 상업업무지역 삼우빌딩405호
전화 (02)445-8484 / Fax : (02)445-8043 / E-mail : keumgang-sw@hanmail.net